

‘미래 거포’ 최원준 “1군 자신있게 도전”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데뷔 첫해 홈런 등 ‘눈도장’
수비 고민 남지만 공격 자신
“더 많은 경기 뛰고 싶다”

꿈같은 시즌을 보낸 ‘아기 호랑이’ 최원준이 더 큰 꿈을 꾀는다. KIA 타이거즈 최원준의 데뷔 첫해 기록은 14경기 25타석이다. 많은 경기, 기회는 아니지만 최원준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자 시즌이었다. 프로에서의 첫 홈런도 때려냈고 11개의 안타로 0.458의 타율도 기록했다. 시즌 마지막에는 5경기에서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치며 0.538의 타율을 찍었다. 시즌이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마무리였다.

최원준은 “올 시즌 한 번도 1군에 못 올라오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시즌을 보냈다”고 2016시즌을 돌아봤다.

타격 재능은 이미 소문난 미래의 거포. 하지만 타격에 비해 수비가 아쉬웠던 최원준이다. KIA 벤치는 그런 최원준을 애지중지하며 한편으로는 강하게 키웠다.

최원준은 퓨처스 리그에서 내·외야를 오가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수비 훈련을 하고 고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최원준은 그 의미를 알기에 올 시즌이 더욱 감사하다.

최원준은 “수비 때문에 내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걸 알고 있다.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기용해주신 것도 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비도 배우시고 자신감 잃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셨다”고 KIA 코칭 스태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수비 고민은 남았지만 공격에서는 자신감을 얻었다. 새로 공격에 눈을 뜨면서 내년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된다.

최원준은 “그동안은 세계 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간결하게 치려는 훈련을 하고 있다”며 “올 시즌 야구를 많이 배웠다. 홈런을 쳤을 때 사실 안 넘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타격을 하는 순간에도 모르게 감독, 코치님이 가르쳐주시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프로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 1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한 KIA 최원준이 매서운 방망이 실력을 앞세워 내년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군 적응은 끝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자신 있게 뛰고 싶다.

최원준은 “1군 적응은 했다. 기회가 오면 편하게 하면서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 1군이라는 곳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편

으로는 많이 어렵지도 않았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겠다”며 “지난번 마무리 캠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어색하고 그래서 어리버리 하다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찾으려 시즌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을 해왔던 최원준은 지난 18일 윈터리그 참가를 위해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오키나와 클·사진=김여울기자 wool@

이상화 빙속 500m 시즌 첫 37초대

월드컵 2차 37초94로 2위



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8초47을 기록했고 2차 레이스에선 38초11을 세웠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7초대 기록에 진입했다. 그는 이날 2위로 월드컵 여자 500m 랭킹 포인트에서 80점을 더해 총 205점을 기록했다.

빙속 여자 이상화(27·스포츠투토)가 주 종목 500m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37초대 기록을 세웠다. 이상화는 20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37초 94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마르샤 허데이와 9조로 배정된 이상화는 인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초반부터 스피드를 내며 이전까지 1위를 달리던 중국 정유(37초97)의 기록을 넘어섰다.

그러나 마지막 조, 10조로 레이스를 펼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가 37초29로 레이스를 펼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상화는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꾸준히 기록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월드컵 1

일날 여자 500m에서 우수한 고다이라 나오의 월드컵 1차 대회 1.2차 레이스 연속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도 우승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김민선은 38초 75로 15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 500m는 한 차례만 한다. 월드컵 3차 대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리디아고 “최종전 흥미진진”

LPGA 챔피언십 4위...우승팬 상금왕·올해의 선수 접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 최종전에서 흥미로운 타이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세계랭킹 1위 리디아고(뉴질랜드)가 “아주 재밌는 일요일(현지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리디아고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천54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를 공동 4위(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로 마쳤다.

공동 4위에는 에리야 쥘타누간(태국), 전인지(22·하이트진로), 제니퍼 송(미국), 리제트 살라스(미국)가 리디아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쥘타누간과 전인지는 리디아고의 타이틀 경쟁 상대다.

올해 시즌 5승을 챙긴 쥘타누간은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100만 달러가 걸린 CME 글로벌 포인트 부문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2위로 뒤쫓고 있는 리디아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쥘타누간을 제치고 해당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다.

리디아고는 전인지와는 최저 평균타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대회 전까지 리디아고 가 69.611타로 1위, 전인지는 69.632타로 2위다. /연합뉴스

최저 평균타수 기록자에게 주는 베어 트로피 역시 마지막 4라운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리디아고는 “간단하다. 그것을 이루려야 우승해야 한다”며 “내가 지금 몇 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내가 추격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압박감을 덜 느끼고, 내가 몇 위에 있는지를 세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되도록 많은 버디를 잡으려고 노력할 뿐이다”라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했다.

리디아고는 이날 단독 선두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로 추종하며 순위가 조금 하락했다.

반면 상금왕, 올해의 선수 등 굳히기 나선 쥘타누간은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는 맹타로 전날 19위에서 이날 4위로 도약했다.

쥘타누간은 “매 샷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결과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코스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칠 준비가 됐다. 우승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는 저에게 굉장한 해다. 내일 상당한 압박감이 들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전히 나의 이번 1년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심 역할 잘해 감독님 재계약 힘 보태야죠”

‘모범 FA’ 나지완, 무등산 오르며 각오 다져

“잘 부탁한다”는 스승의 이야기에 나지완이 응답을 준비한다.

지난 17일 나지완은 4년 40억원(계약금 16억원, 연봉 6억원)에 FA 계약을 끝내면서 KIA 타이거즈 선수로서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됐다.

계약이 이뤄지고 난 뒤 나지완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 전화 사정으로 훈련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통화할 수 있던 두 사람. 김기태 감독의 첫 마디는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였다.

지나치게 과열된 FA 시장 시세를 감안하면 선뜻 축하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던 금액이었던 만큼 김기태 감독은 일찍 계약을 마무리해 준 나지완에 “고맙다”는 말로 축하인사를 대신했다.

시원섭섭했던 마음의 나지완은 아쉬운 마음은 내려놓고 ‘모범 FA’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FA 계약 이후 나지완의 첫 행보는 산행이었다.

나지완은 계약 다음 날인 18일 무등산 장불재 등반에 나섰다.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무등산의 정기를 받았다는 것이 산

행의 이유였다. 고된 길을 다녀온 나지완은 이미 몸만들기에도 들어갔다.

KIA 김기태 감독의 첫 시즌이었던 2015년, 꾸준함으로 대표되던 나지완은 야구 인생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그만큼 김기태 감독은 ‘4번 타자’를 놓고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이 함께 한 첫 시즌은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혹독하게 마음을 먹은 나지완은 올 시즌 반전을 이뤄내며 김주찬-이병호와 함께 팀의 중심 타자로 역할을 해냈다. 내년 시즌에도 중심타자로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이 나지완의 각오다. 또 다른 목표도 있다. “좋은 성적을 내서 감독님과 계속 야구를 하고 싶다”는 게 나지완을 비롯한 KIA 선수들의 목표이자 바람이다. 2017시즌은 김기태 감독의 계약 마지막해다.

나지완은 “KIA에서 은퇴를 하고, 은퇴식을 하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내년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살도 뺐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독님 재계약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내년 시즌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FA 계약 이후 무등산에 올라 2017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KLPGA 왕중왕전 답네

이승현 ‘톱 10’ 대결서 연장 3차전 끝 우승

이승현(25·NH투자증권)이 번의 경기인 LF포인트 왕중왕전에서 연장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LF포인트 왕중왕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톱 골퍼 10명이 총상금 1억7천만원, 우승 상금 5천만원을 걸고 벌이는 이벤트 대회다.

19일과 20일 전남 장흥 JNJ골프장(파72)에서 1·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이 대회는 끝까지 우승자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각축전으로 펼쳐졌다.

이승현은 20일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치고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고진영(21·넥스), 장수연(22·롯데) 김해림(27·롯데)도 똑같이 최종 8언더파를 기록, 4명이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다. 김해림은 이날 5타를 줄였고, 장수연은 4언더파, 고진영은 1언더파를 적어냈다.

18번홀(파4)에서 펼쳐진 연장 1차전에서는 4명이 모두 파를 기록, 연장 2차

전으로 넘어갔다. 연장 2차전부터 이승현의 명품 퍼팅이 빛났다.

이승현은 연장 2차전에서 장거리 버디 퍼트를 넣었다. 이후 장수연도 버디에 성공해 연장 3차전으로 끌고 들어갔다. 고진영과 김해림은 버디에 실패해 탈락했다. 이승현은 연장 3차전에서도 버디에 성공하며 장수연을 따돌리고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현은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문영퀵스파크 챔피언십과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2승을 거뒀다. 통산 우승은 5회다.

LF포인트 왕중왕전은 대회 때마다 컷 통과, 톱10 입상, 연속 대회 톱10 입상 등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상위 8명과 초청선수 2명이 출전한다.

조윤지(25·NH투자증권)와 양수진(25·파리게이트)이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정희원(24·파인테크닉스), 배선우(22·삼천리), 조정민(23·문영그룹), 박결(20·NH투자증권)이 각각 7~10위를 거뒀다. /연합뉴스